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The Expectation and the Performance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of Aged Homemakers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蔡 玉 姬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 Ock Hi chae

목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변화와 가사노동 사회화 유형
 - 2.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특성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구성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3. 분석방법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차

- IV. 결과 및 해석
 - 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실태와 기대정도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 3.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scribe the expectation and the performance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of the aged homemakers and to 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s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ces of other related factors. 344 homemakers who were older than 45 years and were living in Chunlabuk-do, 1990 were sampled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designed by the researcher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본 논문은 1990학년도 주산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aged homemakers' housework socialization score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he score of the expectation was higher than one of the present performance. Scores for the utilization of the household equipments and the utilization of employee's services were higher comparing to those for other variables of the performance and the expectation respectively.

2)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ach of the present performance variables related to the housework socialization among the following demographic variables : Age of homemakers, years of marriage, education, residence area, types of housing, monthly income, and level of housework equipment possession.

3)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among the following variables : age of homemakers, years of marriage, education, monthly income, and types of hous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utilization of grouped, the utilization of the commodity, the utilization of the household equipments as subvariables of housework socialization, among age of homemakers, years of marriage, and level of educat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utilization of employee's services among age of homemakers, types of family, and level of health.

4) The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present performance of the housework socialization. Years of marriag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utilization of grouped, education on the utilization of the commodity.(the utilization of the produced materials) and the utilization of employee's services and monthly income on the utilization of the household equipments (the utilization of the household appliances, and equipments). The years of marriage and edu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expectation on the housework socialization in the order. Age of homemakers and years of marriag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utilization of grouped, the utilization of the commodity, the utilization of employee's services and age of homemakers and monthly income on the utilization of the household equipments.

I. 서 론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즉 가족원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 시키므로써 가족의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하며, 가족원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주로 여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그 형태나 내용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용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산업화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이 날로 다양화, 대량화 되며 편의식품, 기성복, 가정용 전기기구, 외식산업 등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가정에 보급되고 있다. 또한 경제체계의 변화로 가족도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정의 기능도 크게 변화하여 가사노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로 이전시켜 기계나 전문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키고 상품을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려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은 여자가 거의 담당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사회화

시키려는 시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즉 현대의 기술발달에 따른 가사노동의 상품화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총 시간이 감소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그 특성상 그 자체를 저장해 놓을 수 없는 보존불가능성과 대체가능의 한계를 (서창원, 1983) 가지고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별가정에서 여성중심으로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모든여성이 어머니, 아내, 주부, 며느리의 역할로서 젊은시절부터 여성의 삶 전 영역을 통해서 타인을 위하여 부양자적 입장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노년기가 되면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피부양자적 입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됨에 따라 가족의 이동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거주지역을 분리하게 하여 단독거주 노인가정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은 안락한 생활이기보다는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노인들은 현실적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의식주 생활의 가사노동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데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渡邊みよる外7人, 1984). 더욱이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20대의 젊은 주부들은 앞으로 그들 생애에 있어서 향후 20~30년 간의 노령기를 보내게 된다. 특히 보호가 가장 필요한 80세 이상의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누가 이들을 돌 볼 것인가는 큰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가족이 정착되어져 자녀와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부의 임금이 비싸져서 고용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대책확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년기 주부들의 가사노동 사회화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20~30년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므로써 노년기 가정의 가사노동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노인가정의

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변화와 가사노동 사회화유형

경제적 기술 진보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의 도래는 사회적, 이념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가정생활과 여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가정의 형태는 자급자족 가정에서 용역가정, 시장의존가정으로 변화하여 간다(문숙재, 1980).

자급자족가정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만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며 생활하는 가정형태이고 용역가정은 원제료나 반가공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적절하게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 시장의존가정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시장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만을 하는 가정형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형태는 대부분 용역가정 형태와 같은 교환가정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사회의 변화가 가정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가족의 여러기능이 사회제도로 이전되고 있다. 즉 가정의 생산기능이 소비기능으로 분리되었으며 전통적인 가정의 역기능이 표출되면서 가구당 평균가족수는 4.2명이고 2세대 가족이 전체의 67%이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등 여성의 직장진출은 가정내 여성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여 가사노동이 기계화, 상품화등 간소화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가사노동의 변동을 伊藤せつ 등은(1978) 장기적 변동과 단기적변동, 동시점에 있어서의 상위로 구분하고, 장기적 변동은 가정외적 요인, 즉 가정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단기적 변동은 가정내적 요인, 즉 가족의 소득수준, 아내의 취업유무,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생활습관, 가족원의 근무형태,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가사노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이 수행하는 대신 가정기구나 고용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등 가사노동 사회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초기과정에 있어서 시장의존은 가정생활의 합리화 방안으로 의식적으로 추구되나 가정의 사장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규격화된 상품이 가정생활속에 깊게 침투되고 개성적이어야 할 가정이 획일화 되므로써 가족의 생활욕구와 기대에 도달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즉 가족원의 욕구가 개인적일 수록 구입한 상품을 통한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주어지며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도 자연히 지연되게 된다고 보았다(이기영, 1987).

그러나 가사노동 사회화는 경제발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인 발전과정으로서 어느정도는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伊藤せつ(1978)등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육아, 구매 및 가정관리등 생활영역별 가사노동의 현상과 동향 및 규정요인의 고찰을 통해서 가사노동의 변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상품화와 서비스화임을 밝혔으며, 가족주기와 주부의 취업, 주부의 학력에 따른 집단간의 가사양식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정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상과같은 가정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발전 방향을 村田ひこ(1989)은 사회설비화, 기계화, 사회서비스화, 공업제품화 등으로 열거하였고, 渡邊みよる(1984) 등은 동일목적을 지닌 국민들의 공동화로서 공동취사, 공동보육, 공동구입을 지적하였고, 이용자의 편익을 중요시하는 영리적 사회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가사노동을 대체할수 있는 공적사회화를 이용하여 가사노동을 외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宮崎禮子(1984)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방향을 6 가지로 서술하였다.

첫째는 세탁소 이용과 같은 소비비용화. 둘째는 에프터 서비스와 같은 유통비용화.

세째는 생활수단의 기성품화.

네째는 1회사용하고 버리는 생활수단의 소모품화.

다섯째는 교육이나 보육과 같은 부분적 사회화.

여섯째는 가사노동의 기계화등 이다.

Fischer(1975, et al 이기영, 1981)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시장을 통해 구입 됨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정밖으로 이양되는 현상을 가사노동의 산업화라 하였다.

이기영(1981)은 가정의 생산과정이 공적 부분으로 전이되어 국민경제로 편입됨으로써 가사노동을 산업화, 기계화, 집단화의 기본형태로 제시하였다.

김혜경(1985)은 가사노동이 사회화를 자본에 의한 가사노동 산물의 상품화와 국가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공적 사회화를 지적하였다. 문숙재, 소연경(1989)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재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시장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정 내에서 행하던 생산과정이 사회로 이양되어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전문가에 의해 소비비용 또는 유통비용화하여 사적수단으로서 개별가족에 공급되어지는 것과 복수의 개별가족이 분업, 협업하여 상호적 개별가족의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것이다. 이를 大森和子(1981)는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호혜적 노동에 의한 대체, 공적노동에 의해 대체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 사회화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유형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의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 용역화로 보았다.

1) 가사노동의 상품화

산업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상품생산 영역이 확대되면서 종래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경감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재 상품의 사용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를 이기영(1987)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로 표현하고 이를 재화에 의한 대체와 서비스에 의한 대체로 분류하였다. 즉 재화에 의한 대체는 반가공품이나 가공품, 기성품의 사용에 의한 추가적 가공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사노동의 상품화로 보았다.

가사노동의 상품화가 나타나는 것은 우선 가정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 상품화는 가사노동을 집약시켰으며 가사노동 처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자의 생활시간이나 생활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주게 되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대중화 시키므로 누구나 어느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 주부의 취업과 편의품 소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Reilley 1982, Strober & Weinberg, 1980) 나타났다.

한편 이기영(1987)은 주부의 연령은 상품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즉 주부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사노동 상품대체가 적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기준(1989)의 연구에서도 식생활의 외식과 의생활의 웃수선등 상품화에 주부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핵가족의 경우 식생활 영역에서 상품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외숙(1981)은 50대 이상의 주부는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노년기 주부들이 신체적, 정신적변화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상품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2) 가사노동의 집단화

가사노동의 집단화는 가정내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조직된 기구가 담당하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즉 식당에서의 식사, 세탁소에 의한 세탁, 또는 양장점등을 이용하므로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大森和子(1981)은 가사노동 집단화를 서비스에 의한 대체라고 하였고 宮崎禮子(1984)는 이렇게 전문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가사노동의 소비 비용화 또는 유통비용화라 하였다.

가사노동의 집단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개별적인 가계가 완전해체될 수도 있으며 가족은 가사노동으로부터 거의 해방된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 가사노동 집단화에의 요구는 사회적 이유로도 주장된다. 즉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계층에게 시설 및 공공의 자선단체를 통해 최저 생존에 필요한 가사노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가계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노동 집단화는 대 경영체에서 전문적인 특성을 갖는 집단화와 개별적인 가계의 식사의 집단화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공간이 절약되고, 자급의 가능성이 광범위해진다는 등의 잇점을 지적하였다(이기영, 1981). 그러나 가사노동 집단화가 계속 진행되면 개개인의 가정이 전문조직체의 존성이 증대되고 비인간적이며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Fisher(1975, et al 이기영, 1981)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집단화에 대해서 주부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비인간적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집단화 경향은 오히려 감소하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나 공적부조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계층 즉 양노원의 노인들과 같이 개별적인 가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해나 갈 수 없는 계층에 있어서는 집단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연구에서 보면 정연주(1987)는 주부의 연령이 낮고, 가족수가 적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외식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생활 주기중 후기 친자동거기까지는 저장식품의 사회화 정도와 외식의 정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자녀가 출가한 부부후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이기영(1987)은 가족단위의 외식회수에서 반

이상이 월 1~2회 이상 외식하는 것으로 보아 외식산업의 발달과 식당의 대중화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의생활 영역에서도 의류나 침구류는 이미 기성품에 있어서 상품화가 정착되었고 옷수선이나 세탁과 같은 용역부문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가사노동 기계화

가사노동 기계화는 가사노동에 이용되는 모든 기구의 도움으로 최종소비를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가정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사노동의 기계화라 하였다(Fisher, 1975). 즉 청소기, 세탁기, 전기밥솥, 접시닦는 기계등을 이용하므로서 신체적인 손상을 막고 가사노동을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신경주(1986)는 일반가정에 70% 이상 소유율로 널리 보급되어있는 기종은 다리미, 냉장고, 밥통, 익서, 밥솥, 후라이펜. 세탁기 커피폿으로 의생활 용기 2종, 식생활용기 6종이었으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유율이 높다고 하였다.

Deacon 과 Firebaugh(1975)은 가정의 환경중 가정설비는 가사노동을 돋는 촉진제로 보았다. 그러나 Linder(1970)은 더 많은 가사용품과 가사 관련 기술이 도입될수록 그것을 획득, 유지 수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사노동의 수행을 촉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가정내의 가사노동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세탁기의 지속적인 보급은 관련 가사노동의 상품화를 자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이기영, 1987).

실증연구에서도 가정기기를 보유한 가정과 보유하지 않은 가정간의 가사노동을 비교한 Robinson(1980)의 연구에서는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황하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의 취업이 가정기기의 소유정도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Reilley, 1982)와 주부교육수준이나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기계화 정도는 증가하는 경향임을 밝혔다(정연주, 1987).

이정수(1984)의 연구에서도 식사관리와 관련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식사관리 시간을 다소 단축시키는 경향을 보일뿐 다른기기들을 사용함에 의해서는 가사노동 시간의 단축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Stroberg(1980)이 취업 주부가 가사노동 절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가사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가사노동기기의 사용을 들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로 보아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가속되어 주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가정기기의 사용방법과 조작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4) 가사노동 용역화

최근 서구유럽국가에서는 노년기의 가족내 서비스노동인 가사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보조원(state-supported Home Helper)과 노인을 위한 보조적 가정봉사(Supportive Home Services) 및 Home care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P. Townsend, et al 김태현, 1981).

일본에서도 20여년전부터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식사, 세탁, 청소등을 도와주고 있다(渡邊みよる外 7인, 1984).

이와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보조원, 가정봉사원등을 가사노동 중에서 인간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사노동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화의 시도라고 보았다. 또한 大森和子(1981)도 가정부와 파출부의 고용은 시장에서 구입되는 서비스노동으로서 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기영(1987)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주부와 파출부가 수행하는 일의 범주를 고려할 경우 이들의 고용은 가사노동을 밖으로 이전시키거나 분해시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므로 이를 가사노동 상품대체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보존불가능성과 대체불가능성에 근거를 두어 꼭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노동으로 간주하여 가정부나 파출부의 고용노동과 구미제국에서 국가가 채택하는 Home Helper나 Home Care 들에 의한 가사노동

보조를 가사노동 사회화 중에서 용역화로 채택하였다.

Hartmann(1974)는 1900년 초기에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중산층의 가정용역의 고용이 격감됨으로써 가사노동의 수행양식이 중산층과 노동계층 간에 유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써 가사양식에 대한 가정부의 영향을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정연주(1987)는 부부후기에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담당할 능력이 저하되므로 유급 가사보조자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며, 생활의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처하는 주부일수록 가족원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짐으로서 유급보조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부, 파출부 이용은 수요가 증대되는데 비하여 공급자가 적어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이용율은 문숙재, 흥성희(1988) 연구에서는 가정부 5.4% 파출부 15.1%로 낮아지는 경향이며, 이재희(1989)의 연구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2.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노년기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처하여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인간이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윤진(1985)은 인간의 연령을 신체적 나이, 신체적 성숙이나 건강수준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규범에 따른 사회적 나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적 나이로 나누었다. 따라서 한 개인을 노인으로 규정지을 때는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근래에 와서 노년기의 장기화 현상으로 가족주의 관점에서 또는 대 사회적인 면에서 노인의 신상에 단계적으로 변동이 있으므로 노년기를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구미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분류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Tamposon과 Streib(1961) 그리고 김태현(1981)는 노년기를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마지막단계로 인식하고 이시기를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자녀들이 독립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부부의 연령이 대체로 45~54세이므로 이 시기에는 반수이상의 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제2기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편이 직업생활에서 은퇴하기까지의 시기로서 부부의 연령이 55~64세이다.

제3기는 남편이 직업활동에서 은퇴한 후의 일정 시기로서 부부의 연령은 65~74세이다.

제4기는 노부부만의 시기로 75세이상에 이르며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주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우리나라 노년학자들은 노년기를 세분해서 노년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거나 초노기, 중노기, 말노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인협(1988)은 55세에서 64세를 연소노인으로 65세에서 69세를 중·고령노인으로 고학률 맞은 70세 이상을 고령노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주부의 생활자립능력의 저하과정을 중심으로 노년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渡邊みよる外7인, 1984).

즉 1 단계는 직업이나 사회활동등 가사노동내용의 양적 축소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2단계는 가사노동 능력이 저하해가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가사노동과 모든 생활동작 ‘능력이 저하하는 시기이며, 제4단계는 타인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상과 같은 노년기의 분류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노년기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45세~54세까지를 노년초기, 55~64세를 노년중기 65세 이상을 노년후기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제1단계는 연령이 45세~54세까지의 주부들로서 노년기를 보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가족생활주기로 보아 축소기로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이므로 가사노동의 내용도 주부자신을 위한 의, 식, 주생활영역으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제2단계는 연소노인기로 접어든 55세부터 64세 주부들로서 자신만을 위한 노동을 하거나 부부를 위한 가사노동으로 노동의 양이나 내용, 능력이 저하되는 시기로 보았다. 제3단계는 65세이상의 주부이다. 65세이상의 노년기에 들어서면 그 연령이하의 노인과는 신체적자립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대체로 70세이상의 노인들은 자신이 아직도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지않는다(김태현, 1981). 70세정도까지는 자녀들의 가족주기로 보아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기 돌보는일, 집안보살핌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 할 수 있고,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충고나 지도도 유효성을 지닌다. 그러나 70세가 지나면 인간은 신체적 자립성이 후퇴하므로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奥村美代子(1983)은 70세대 전반과 후반사이에서 손동작적, 상반신 동작인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가 현저하며, 평균일의 가사행동 시간은 60세대에서 131.7분 70대 전반에서 120분 80~90세대에서는 68.2분으로서 활동 시간대에서 차지하는 가사시간 비율은 60세대의 18.5%에서 80~90세대의 9.6%로 반감했다.

더우기 노쇠해서 가정내에서만 지내는 house bound(두문불출) 노인들의 경우는 세탁, 급식 및 일용품구입을 위한 출입등 가사조력의 도움을 신체적 자립도가 높은 노인보다 많이 타인에 의존 하며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Bed Fast 노인이나 남자노인의 경우는 동거가족서비스 부담이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욱 증가될 것은 말 할것도 없다.

이와같이 생애 최후단계에서 여성의 최대 문제는 이제까지의 특징은 각 시기를 아래로 어머니로 며느리로서 가사, 육아, 노인부양등에 전념해오면서 노년기를 맞이 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양자기 피부양자로의 역할전이가 발생한다.

Shanas(1982),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도 미국노인의 60%이상의 주된 부양원은 가족이며 특히 건강이 좋지않은 노인, 병상의 노인들에게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고령화 할 수록 가족들의 부양에 더 많은 불만을 나타낸다고 김태현(1981)은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78%가 친자동거가족으로서 구미제국에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높은 동거율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이 동거율은 20%감소하고 있으며 오늘날은 단독거주노인 가정도 2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세대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도 있겠지만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여 노부모가 자리잡고 있는 거주지역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소규모화나 취업주부의 증가 등으로 노인을 보살필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인 자신도 노후를 위한 심신의 준비나 생활설계도 없이 옛날과 같이 당연하게 자녀에게 의탁하여 노후를 보낼것으로만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년기가 되면 노화에 따라 야기되는 변화를 수용하고, 물리적인 제한점을 정하고, 단독주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든지, 일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하며,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생활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여성은 경제적수준에 따라서 여성의 역할, 생활만족도, 인지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다(구소희, 1987).

그러므로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며느리를 도와주는 가사노동의 지원을 축적하고 가정내에서 상호의존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Lebra,1979 ; 서병숙, 1987).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노년기가 되면 일상생활적 자립능력이 점차로 감퇴되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가사노동을 합리화, 간소화시키기위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 용역화적인 측면에서 모색되어져야한다.

3.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 목적인 노년기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실태와 기대정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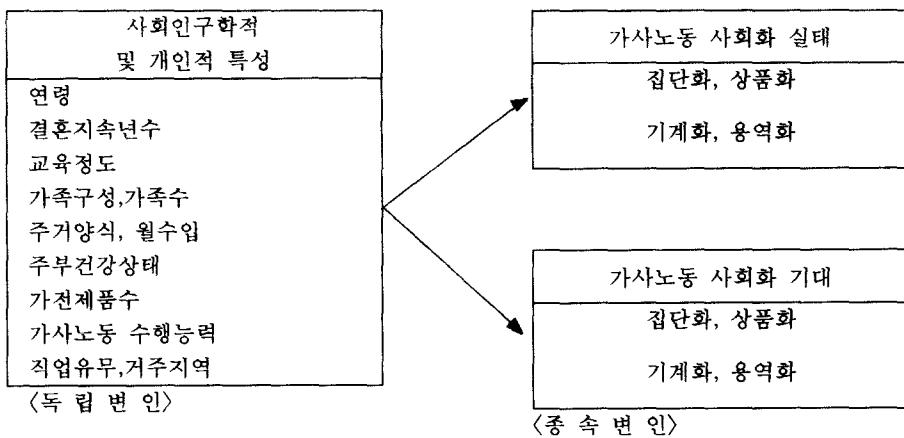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이 가사노동 사회화실태와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는 노년기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노동 사회화와 그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수준을 각각 집단화 하였고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을 가사노동의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 용역화 변수로 구분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가 높은 문항만을 채택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및 기대수준측정은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45세이상의 주부들로 한정 시켰다.

예비조사는 1990년 6월 20일에서 30일에 실시

하였고 본조사는 1990년 9월 15일에서 10월 10일까지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32부가 회수되었으나 344부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연구의 자료처리는 PC用 SAS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ANOVA, F검증,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년기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실태와 기대

가사노동 사회화와 그 하위영역인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용역화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다.

가사노동 사회화 상황은 평균 2.78로 중간수치인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년초기 주부집단에서 가사노동 사회화 평균이 2.89로 가장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 중 기계화가 평균 3.4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집단화로 평균 2.95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용역화는 과출부나 가정부의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는 연구들(정연주, 문숙재 1987; 문숙재, 홍성희

1988)과 유사함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전체평균이 3.06으로 비교적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노년중기이하에 속하는 주부집단은 평균 3.16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다

〈조사대사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설문조사 -

(N=344)

| 변인 | 구분 | 빈도 | 백분률 | 변인 | 구분 | 빈도 | 백분률 |
|------------|----------------|------|------|--------------|----------|-----|------|
| 연령 | 55세 이하 | 232 | 67.4 | 주거 | 아파트, 연립 | 76 | 22.1 |
| | 55세~64세 | 65 | 18.9 | | 양옥주택 | 163 | 47.4 |
| | 64세 이상 | 47 | 13.7 | | 한옥주택 | 105 | 30.6 |
| 결혼지수 년수 | 25세 이하 | 125 | 36.3 | 월수입 | 30만원미만 | 22 | 6.4 |
| | 25세~30년 | 113 | 32.8 | | 30~60만원 | 81 | 23.5 |
| | 31~40년 | 50 | 14.5 | | 60~90만원 | 122 | 35.5 |
| | 40년이상 | 56 | 16.3 | | 90~120만원 | 62 | 18.0 |
| 직업 유무 | 없음 | 280 | 81.4 | | 120만원이상 | 57 | 16.6 |
| | 있음 | 64 | 18.6 | 주부의 건강정도 | 불편한 편 | 99 | 28.8 |
| | 교육 정도 | 189 | 54.6 | | 보통 | 177 | 34.0 |
| 가족 구성 | 고졸 | 132 | 38.4 | | 건강한편 | 128 | 37.2 |
| | 대학이상 | 23 | 6.7 | 가전제품 수 | 4대 이하 | 21 | 6.1 |
| | 부부만 | 46 | 13.4 | | 4~6대 | 137 | 39.8 |
| 동거 가족수 | 자녀부부와 함께 동거 | 32 | 9.4 | | 6대 이상 | 186 | 54.1 |
| | 독신자녀와 동거 | 210 | 61.0 | 가사노동 수행능력 | 잘못하는 편 | ◦ | ◦ |
| | 기타 | 56 | 16.3 | | 보통 | 47 | 13.7 |
| | 2명 | 51 | 14.8 | | 잘하는 편 | 297 | 86.3 |
| | 3명~4명 | 91 | 26.5 | 거주지 | 도시 | 260 | 75.6 |
| 5명~6명 | 153 | 44.5 | 농촌 | 84 | 24.4 | | |
| | 7명~8명 | 49 | 14.2 | | | | |

표 2.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수준

(N=344)

| 구분(N) |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 | | | | |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 | | | | |
|----------------------|--------------|------|------|------|------|-------------|------|------|------|------|
| | 집단화 | 상품화 | 기계화 | 용역화 | 전체 | 집단화 | 상품화 | 기계화 | 용역화 | 전체 |
| 45~54(232) (노년초기) | 3.08 | 2.76 | 3.56 | 1.90 | 2.89 | 2.73 | 2.61 | 3.63 | 3.57 | 3.11 |
| 55~64(65) (노년중기) | 2.75 | 2.42 | 3.20 | 1.81 | 2.60 | 2.77 | 2.63 | 3.53 | 3.60 | 3.16 |
| 65세이상(47) (노년후기) | 2.59 | 2.47 | 3.08 | 1.64 | 2.51 | 2.47 | 2.22 | 3.04 | 3.51 | 2.76 |
| 평균 | 2.95 | 2.65 | 3.43 | 1.85 | 2.78 | 2.70 | 2.56 | 3.53 | 3.56 | 3.06 |
| 표준편차 | 0.83 | 0.65 | 1.04 | 0.84 | 0.59 | 0.64 | 0.53 | 0.72 | 0.56 | 0.44 |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년후기의 주부집단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정도가 가장 낮았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에서 용역화가 평균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초기와 중기에 속하는 주부들은 국가가 채용하는 보조원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노년후기에 속하는 주부일수록 가족원 특히 자녀들에게서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가사노동의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등에 대한 기대는 현 상황인 실태와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사노동의 상품화, 집단화, 기계화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표 3과 같다.

가사노동 사회화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전체에 유의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높은집단, 월수입이 많은집단, 노년초기에 속하는 집단, 결혼지속년수가 30년이하일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사노동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구성, 가사노동 수행능력, 건강상태와 같은 변수들은 유의수준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인 가사노동 집단화에 유의적인 변수는 주부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주거양식, 월수입, 거주지역, 건강상태이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집단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지속년수, 건강상태 변수는 $r=.05$ 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는 인정되나 변수내 분류 항목간에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가족구성, 가족변수들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상품화에 유의적인 변수는 교육정도, 연령, 결혼지속년수기간 월수입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에서 고졸집단이 대

졸집단보다 상품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연령 변수에서 55세 이하인 노년초기에서, 결혼지속년수 30년이하에서, 도시에거주 할수록 상품화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중상류층으로 갈수록 주부들의 가정중심성(김혜경, 1985)으로 인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짐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상품화를 전천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정학교육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사노동 기계화에 유의적인 변수는 주거양식, 교육정도, 연령, 가족수, 결혼지속년수, 거주지역 등이다. 즉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 할수록, 기계화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족구성, 건강상태, 가사노동수행능력, 직업유무 변수는 직접적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용역화에서 연령, 교육정도, 주거양식, 월수입, 건강상태, 거주지역등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며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가사노동 용역화가 높다고 말할수 있으나 용역화가 전반적으로 평균값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파출부나 가정부의 임금이 높아져서 고용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들(문숙재, 홍성희, 1988)의 결과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본 연구의 표집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낮아진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농촌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하는 노년기 주부들을 위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의 기대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주거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실태의 분산분석

| 변인 | 구분 | 집단화 | | 상품화 | | 기계화 | | 용역화 | | 전체 | |
|----------|-----------|-------|--------|--------|--------|-------|-------|-------|--------|--------|-------|
| |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 연령 | 45~54세 | 3.084 | *** | 2.756 | *** | 3.560 | *** | 1.901 | *** | 2.89 | *** |
| | 55~64세 | 2.754 | 9.82 | 2.415 | 9.75 | 3.200 | 6.32 | 1.808 | 2.03 | 2.59 | 13.32 |
| | 65세 이상 | 2.585 | | 2.468 | | 3.078 | | 1.639 | | 2.50 | |
| 결혼년 | 25년 이하 | 3.096 | | 2.757 | | 3.547 | | 1.824 | | 2.87 | |
| | 26~30년 | 3.036 | *** | 2.745 | *** | 3.525 | *** | 1.947 | *** | 2.87 | *** |
| | 31~40년 | 2.800 | 5.61 | 2.480 | 5.78 | 3.380 | 4.20 | 1.900 | 1.66 | 2.69 | 7.97 |
| | 41년 이상 | 2.607 | | 2.405 | | 3.000 | | 1.652 | | 2.47 | |
| 교육정도 | 중졸 이하 | 2.675 | *** | 2.499 | *** | 3.145 | *** | 1.656 | *** | 2.55 | *** |
| | 고졸 | 3.205 | 34.23 | 2.866 | 13.26 | 3.760 | 16.95 | 1.992 | 17.42 | 3.02 | 39.02 |
| | 대졸 이상 | 3.804 | | 2.681 | | 3.826 | | 2.587 | | 3.23 | |
| 가족구성 | 부부만 동거 | 2.924 | | 2.464 | | 3.348 | | 1.193 | | 2.71 | |
| | 자녀·부부와 동거 | 2.781 | 0.57 | 2.583 | 2.31 | 3.250 | 2.59 | 1.703 | 0.45 | 2.64 | 2.11 |
| | 독신자녀와 동거 | 2.974 | | 2.719 | | 3.543 | | 1.862 | | 2.84 | |
| | 기타 | 3.000 | | 2.595 | | 3.115 | | 1.821 | | 2.68 | |
| 가족수 | 2명 | 2.755 | | 2.556 | | 2.876 | | 1.892 | | 2.55 | |
| | 3~4명 | 3.121 | | 2.703 | | 3.505 | *** | 1.973 | *** | 2.88 | *** |
| | 5~6명 | 2.938 | 2.31 | 2.702 | 1.72 | 3.564 | 6.13 | 1.824 | 1.76 | 2.83 | 4.27 |
| | 7명 이상 | 2.898 | | 2.503 | | 3.422 | | 1.643 | | 2.68 | |
| 주거양식 | 아파트·연립 | 3.171 | *** | 2.5965 | | 3.658 | *** | 2.145 | *** | 2.939 | *** |
| | 양옥 | 3.043 | 10.79 | 2.7342 | 2.53 | 3.650 | 20.79 | 1.880 | 10.83 | 2.900 | 21.29 |
| | 한옥 | 2.657 | | 2.5651 | | 2.911 | | 1.581 | | 2.491 | |
| 월수입 | 30만원 미만 | 1.978 | | 2.242 | | 2.636 | | 1.387 | | 2.136 | |
| | 30~60만원 | 2.587 | *** | 2.514 | ** | 3.033 | *** | 1.500 | *** | 2.482 | *** |
| | 61~90만원 | 3.070 | 20.62 | 2.743 | 4.56 | 3.432 | 12.94 | 1.910 | 9.34 | 2.848 | 23.58 |
| | 91~120만원 | 3.162 | | 2.790 | | 3.688 | | 2.016 | | 2.979 | |
| | 120만원 이상 | 3.377 | | 2.661 | | 3.994 | | 2.202 | | 3.112 | |
| 주거부상태 | 건강한편 | 3.070 | | 2.695 | | 3.496 | | 1.945 | * | 2.860 | * |
| | 보통 | 3.021 | ** | 2.643 | 0.54 | 3.504 | 2.12 | 1.885 | 3.09 | 2.825 | 4.66 |
| | 건강치못함 | 2.722 | 5.63 | 2.606 | | 3.246 | | 1.677 | | 2.635 | |
| 가족전보제유 | 4대 이하 | 2.238 | *** | 2.238 | *** | 2.302 | *** | 1.405 | *** | 2.090 | *** |
| | 5~6대 | 2.686 | 29.39 | 2.509 | 13.62 | 3.000 | 53.07 | 1.693 | 9.22 | 2.528 | 64.15 |
| | 6대 이상 | 3.231 | | 2.805 | | 3.867 | | 2.011 | | 3.050 | |
| 가수사행노능동력 | 잘못하는 편 | | | | | | | | | 3.088 | |
| | 보통 | 2.840 | 1.01 | 2.603 | 0.31 | 3.213 | 2.32 | 1.936 | 0.61 | 2.700 | 1.11 |
| | 잘하는 편 | 2.971 | | 2.660 | | 3.460 | | 1.833 | | 2.979 | |
| 직업업무 | 유무 | 2.968 | | 2.542 | | 3.271 | | 2.031 | | 3.043 | |
| | 직업업무 | 2.950 | -0.146 | 2.677 | 1.807 | 3.462 | 1.296 | 1.805 | -1.589 | 3.0612 | 0.29 |
| 거주주역 | 도시 | 3.100 | *** | 2.719 | ** | 3.610 | *** | 1.969 | *** | 3.093 | ** |
| | 농촌 | 2.500 | 5.4356 | 2.444 | 3.3294 | 2.857 | 5.827 | 1.470 | 5.676 | 2.946 | 2.618 |

*P<.05 **P<.01 ***P<.001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대한 분산분석

| 변인 | 구분 | 집단화 | | 상품화 | | 기계화 | | 용역화 | | 전체 | |
|----------|-----------|-------|-------|-------|--------|-------|-------|-------|------|-------|-------|
| |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평균 | F |
| 연령 | 45~54세 | 2.728 | * | 2.609 | *** | 3.634 | *** | 3.566 | *** | 3.106 | *** |
| | 55~64세 | 2.765 | 3.68 | 2.631 | 11.66 | 3.531 | 14.50 | 3.600 | 0.35 | 3.101 | 12.85 |
| | 65세 이상 | 2.468 | | 2.223 | | 3.037 | | 3.511 | | 2.763 | |
| 결혼 | 25년 이하 | 2.716 | | 2.594 | | 3.584 | | 3.597 | | 3.091 | |
| 혼녀 | 26~30년 | 2.664 | * | 2.617 | *** | 3.673 | *** | 3.534 | | 3.094 | *** |
| 지수 | 31~40년 | 2.930 | 3.65 | 2.675 | 7.42 | 3.565 | 8.77 | 3.560 | 0.26 | 3.157 | 7.05 |
| 속 | 41년 이상 | 2.531 | | 2.268 | | 3.107 | | 3.560 | | 2.820 | |
| 교육 | 중졸 이하 | 2.659 | | 2.489 | * | 3.423 | ** | 3.511 | | 2.988 | ** |
| 육정도 | 고졸 | 2.752 | 0.86 | 2.652 | 3.83 | 3.678 | 5.10 | 3.624 | 1.97 | 3.147 | 5.35 |
| | 대출 이상 | 2.739 | | 2.620 | | 3.598 | | 3.667 | | 3.122 | |
| 가족구성 | 부부만 동거 | 2.766 | | 2.549 | | 3.495 | ** | 3.348 | * | 3.019 | |
| | 자녀·부부와 동거 | 2.672 | 0.80 | 2.328 | 2.35 | 3.141 | 5.02 | 3.573 | 3.42 | 2.885 | 2.09 |
| | 독신자녀와 동거 | 2.664 | | 2.589 | | 3.629 | | 3.576 | | 3.084 | |
| | 기타 | 2.795 | | 2.594 | | 3.429 | | 3.696 | | 3.091 | |
| 가족수 | 2명 | 2.716 | | 2.480 | | 3.319 | | 3.575 | | 2.986 | |
| | 3~4명 | 2.783 | 1.15 | 2.670 | 1.94 | 3.659 | 2.49 | 3.568 | 0.03 | 3.144 | 1.77 |
| | 5~6명 | 2.632 | | 2.538 | | 3.526 | | 3.566 | | 3.032 | |
| | 7명 이상 | 2.740 | | 2.510 | | 3.541 | | 3.544 | | 3.053 | |
| 주거양식 | 아파트·연립 | 2.720 | | 2.569 | | 3.612 | * | 3.605 | | 3.095 | * |
| | 양옥 | 2.735 | 0.88 | 2.586 | 0.59 | 3.607 | 4.47 | 3.585 | 0.90 | 3.098 | 3.07 |
| | 한옥 | 2.631 | | 2.514 | | 2.359 | | 3.505 | | 2.969 | |
| 월수입 | 30만원 미만 | 2.943 | | 2.568 | | 3.273 | ** | 3.652 | | 3.073 | * |
| | 30~60만원 | 2.602 | 1.42 | 2.457 | 1.24 | 3.324 | 4.08 | 3.453 | 1.18 | 2.926 | 2.45 |
| | 61~90만원 | 2.749 | | 2.566 | | 3.576 | | 3.609 | | 3.090 | |
| | 91~120만원 | 2.673 | | 2.641 | | 3.625 | | 3.597 | | 3.103 | |
| | 120만원 이상 | 2.689 | | 2.605 | | 3.737 | | 3.561 | | 3.121 | |
| 주건부강의상태 | 건강한편 | 2.683 | | 2.494 | | 3.502 | | 3.619 | * | 3.039 | |
| | 보통 | 2.720 | 0.10 | 2.588 | 1.65 | 3.521 | 0.40 | 3.543 | 3.58 | 3.045 | 0.57 |
| | 건강치못함 | 2.697 | | 2.614 | | 3.586 | | 3.626 | | 3.098 | |
| 가품전보제유 | 4대 이하 | 2.762 | | 2.643 | | 3.214 | ** | 3.524 | | 3.003 | * |
| | 5~6대 | 2.622 | 1.67 | 2.493 | 1.91 | 3.341 | 5.82 | 3.538 | 0.40 | 2.986 | 3.62 |
| | 6대 이상 | 2.750 | | 2.601 | | 3.644 | | 3.590 | | 3.117 | |
| 가수사행노능동력 | 잘못하는 편 | 2.743 | | 2.572 | | 3.612 | | 3.535 | | 3.088 | |
| | 보통 | 2.681 | 0.98 | 2.573 | 0.01 | 3.532 | 0.28 | 3.551 | 0.32 | 3.053 | 0.25 |
| | 잘하는 편 | 2.775 | | 2.518 | | 3.511 | | 3.614 | | 3.070 | |
| 직유업무 | 유 | 2.598 | T값 | 2.621 | | 3.527 | | 3.552 | | 3.043 | |
| | 무 | 2.723 | 1.456 | 2.546 | -0.981 | 3.534 | 0.07 | 3.568 | 0.21 | 3.061 | 0.295 |
| 거주역 | 도시 | 2.746 | * | 2.572 | | 3.585 | * | 3.599 | | 3.094 | ** |
| | 농촌 | 2.557 | 2.404 | 2.524 | 0.739 | 3.872 | 2.127 | 3.460 | 1.87 | 2.946 | 2.618 |

*P<.05 **P<.01 ***P<.001

양식, 거주지역, 월수입, 가전제품 보유등이다.

즉 향후 20~30년을 예상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는 연령이 젊은 즉 노년초기일수록, 결혼지속년수도 젊고,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들이 사회화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은 경향이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월수입이 많은 집단에서 사회화의 기대정도는 높다.

한편 가족구성, 가족수, 건강상태, 가사노동 수행능력, 직업유무 등의 변인들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인 집단화에 대한 기대는 연령, 결혼지속년수, 거주지역에서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64세미만인 노년중기 일수록, 결혼지속년수가 31~40년에서, 도시에 거주 할수록 집단화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서 젊은 주부 일수록 대식당이나, 전문세탁소등의 이용을 선호하게 되며, 가사노동을 집단화 시키려는 경향임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로 보아 젊은세대에게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전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가사노동 상품화 기대분석에서 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변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64세이하인 노년중기, 결혼지속년수 40년이하에서, 고졸이상의 교육정도에서 상품화에 대한 기대값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값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 기계화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상태, 직업유무에서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뿐 나머지 모든 변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64세 이하인 노년 중기 이하, 결혼지속년수가 40년이하 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나 양옥에 거주할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기계화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았다.

이와같은 가사노동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자급정도는 더욱 높아지

며 가사노동 상품화나 집단화는 낮아질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계화의 진보를 의미한다.

가사노동 용역화에 대한 기대분석에서 가족구성, 건강상태에서만이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녀들과 동거하는 주부일수록 용역화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노인 부양의 책임은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모든 변인에 관계없이 용역화에 대한 기대 정도의 평균값이 다른 하위영역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사노동은 인간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즉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용역화는 더욱 가속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정과 국가, 사회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

4.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만 분석에서 채택한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양적 변인으로서 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월수입이다.

1)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표 5에 의하면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변인으로 45% 설명할수 있으며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은 월수입($\beta=.320$), 교육정도($\beta=.258$)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지속년수($\beta=-.038$)는 負의영향을 나타내므로 결혼지속년수가 짧아질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영역별로 볼 때 집단화는 31.49%로 설명할 수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육정도($\beta=.267$) 월수입($\beta=.239$)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결혼지속년수 ($\beta=-.041$)는 負의영향을 나타냈다.

표 5.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독립변수 | | 종속변수 | 집단화 | 상품화 | 기계화 | 용역화 | 전체 |
|-----------|------|---------|-----------|----------|-----------|-----------|-----------|
| 표귀 | 연령 | .008 | -.020 | -.041 | .126 | .010 | |
| 준계 | 결혼지속 | -.401 | -.073 | .025 | -.053 | -.010 | |
| 화수 | 년수 | | | | | | |
| 된 | 교육정도 | .267*** | .144* | .133 | .223*** | .258*** | |
| 회 β | 월수입 | .239*** | .024* | .192*** | .181** | .230*** | |
| | | F 값 | 25.816*** | 8.152*** | 25.927*** | 10.824*** | 46.023*** |
| | | R 값 | .3149 | .1267 | .3158 | .162 | .450 |

상품화는 12.67%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육정도 ($\beta=.144$) 가사노동 능력 ($\beta=.087$)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 ($\beta=-.020$) 결혼지속년수 ($\beta=-.073$)는 負的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 상품화 정도는 낮아진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가사노동 상품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소득이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상품화 수준이 높으며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품화를 지연 시키며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Olson, 1982; 이기영 1987; 이재희, 1991).

기계화는 31.58%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월수입 ($\beta=.192$) 교육정도 ($\beta=.133$)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 ($\beta=-.041$)은 負의 영향력을 미친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계화 정도는 낮다.

가사노동 용역화는 16.2%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육정도 ($\beta=.223$) 월수입 ($\beta=.181$)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

러나 결혼 지속년수 ($\beta=-.053$)는 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은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 용역화는 가정부, 파출부 고용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가정부나 파출부 고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소득이나 교육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라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정연주, 1987; 문숙재, 흥성희, 1988). 이상과 같은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정도와 월수입으로서 가사노동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2)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인 집단화 변수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변인으로 6.7%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육정도

표 6.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독립변수 | | 종속변수 | 집단화 | 상품화 | 기계화 | 용역화 | 전체 |
|-----------|------|--------|--------|--------|----------|--------|--------|
| 표귀 | 연령 | -.1958 | -.0458 | -.1187 | -.3730* | -.0472 | |
| 준계 | 결혼지속 | | | | | | |
| 화수 | 년수 | .1597 | -.1067 | -.0773 | -.2915 | -.0796 | |
| 된 | 교육정도 | .0524 | .0433 | .0273 | .1238 | .0773 | |
| 회 β | 월수입 | -.0650 | .0280 | .1155* | -.0241 | .0276 | |
| | | F 값 | .919 | 2.739* | 7.542*** | 2.350* | 4.062* |
| | | R 값 | .0161 | .0465 | .1184 | .0402 | .0674 |

($\beta=.077$), 월수입($\beta=.027$)순으로 正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결혼지속년수($\beta=-.079$), 연령 ($\beta=-.047$)은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가 적어질수록 사회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본다.

영역별로 볼 때 집단화 변수에 대한 기대 분석 결과 16%로 설명할 수 있으며, 결혼지속년수($\beta=.160$), 교육정도 ($\beta=.052$)의 순으로 正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반면 연령 ($\beta=-.196$), 월수입($\beta=-.065$)은 負의 영향을 나타내므로 연령과 월수입이 많아질수록 집단화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다. 이는 연구 방법에서 집단화요인 설문이 주로 대식당에서 공동식사, 노인홈이고 양노원등의 변인이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본다.

상품화는 4.6%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교육정도 ($\beta=.043$), 월수입($\beta=.028$)으로 正의 영향을 미치며, 결혼지속년수($\beta=-.107$), 가사노동 수행능력($\beta=-.048$), 연령($\beta=-.045$)순으로 負의 영향이 있다. 즉 결혼지속년수와 연령이 적을수록 상품화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으며,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적을수록 상품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는 이기영(1987)연구에서 밝힌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주부의 연령이 젊은 집단에서 상품화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상품화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화 기대는 11.8%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월수입 ($\beta=.116$), 교육정도 ($\beta=.027$)순으로 正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beta=-.1119$), 결혼지속년수($\beta=-.077$)가사노동수행능력($\beta=.004$)순으로 負의 영향을 미친다.

즉 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가 적어질수록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기계화 기대는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행의 질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대체시키지 않고 직접수행하는 경향이라는 Wheeler(1984)와 이기영(1987)의 연구와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용역화 기대는 4%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수는 연령($\beta=.373$), 교육정도($\beta=.124$) 가사노동 수행능력 ($\beta=.103$)순으로 正의 영향이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은 구미 선진제국에서 채택하는 가정파출부, 가정보조원 등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를 연구한 것이다. 이것은 노인단독세대 가정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노년기에 속하는 주부의 사회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노동 사회화를 종속변수로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가정이 증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가정하여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실태와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노년초기의 주부에서부터 노년후기에 속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전반적으로 평균점을 상회하였다. 특히 가사노동 사회화 기대는 실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중기 이하에 속하는 집단에서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20~30년에는 가사노동 사회화가 가속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중 용역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가사노동 능력의 문제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보조원이나 가정 파출부를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는 사회인구학적 및 개인적특성 변인 전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즉 교육수준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도시,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가사노동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인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용역화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월수입, 기기보유,

거주지역등이다. 반면 가족수, 가족구성, 직업유무, 가사수행능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가사노동 사회화는 주부의 개인적 특성변인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향후 20~30년의 기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결혼지속년수, 교육정도 등이다. 그러나 용역화에서는 연령과 가족구성, 건강상태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 이었다. 따라서 건강치 못하여 가사능력이 저하된 노년기주부를 위한 가정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네째,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가장 영향이 큰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교육정도, 월수입순이었다. 그러나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인 집단화는 결혼지속년수, 상품화, 용역화는 교육정도, 기계화는 월수입이 영향력의 큰 변인이다.

한편 가사노동 사회화 하위영역중 집단화 상품화, 용역화는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순서로 영향력이 있으나 기계화는 연령과 월수입 순으로 영향이 크다.

이와같이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나 기대에 영향력이 큰 변인이 교육정도, 연령, 월수입 임을 고려해 볼때 가사노동 사회화와 그 하위영역인 집단화, 상품화, 기계화, 용역화에는 경제적 자원에 의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사노동 사회화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노년후기가 되면 인간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사노동만이 남게되므로 남녀모두에게 가사노동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가, 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 단독세대와 저소득층 노년기 주부를 위한 가사노동 집단화 시설과 용역화를 도모하는 가정파출부나 가정보조원을 국가가 채용해주는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영란(1988). 가사노동에 관한 계급별 사례연구 - 신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2)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3)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 (1), 대한가정학회지, 19(4), 55-63.
- 4) 김혜영(1985).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연구. 여성 해방론으로써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5) 문숙재(1980).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8)3, 21-28.
- 6) 문숙재·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 신팍출판사.
- 7) 문숙재, 홍성희(1988).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 8) 이기영(1981).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고대 사대 논문집, 6, 207-223.
- 9) _____ (1982).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 평가에 관한소고. 고대 사대 논집, 7, 125-145.
- 10) _____ (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11) 이기준 외 5인(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 행태 연구. 서울시 가계의 의, 식, 주생활 관련 상품 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12) 이승미, 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9-142.
- 13) 이재희(1991). 도시가정의 가사관련 서비스구매 및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14)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15) 윤진(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 적성출판사.

- 16) 서창원(1984).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7) 서병숙(1988). 노인적응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소연경, 문숙재(1989).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9-138.
- 19) 조윤경(1988).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관한 연구. 성열활 태도 및 가사노동 가치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20) 정연주(1986).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연구. 식생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21) 장인협; 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22) 大森和子外 4人(1981). 家事勞動. 東京; 光生館.
- 23) 關志比子 外 5人(1982). これから の 家庭經營學. 東京; 建帛社.
- 24) 村田泰彦(1984). 生活課題 教育. 東京; 光生館.
- 25) 渡邊はみよる 外7人(1986). いま家事勞動に問ねるもの. 東京; 有斐閣選書.
- 26) 森圭一, 村尾勇之(1985). 女性の自立と テイマ・サイワル. 東京; 家政教育社.
- 27) 宮寄禮子, 伊藤ヤツ(1987). 家庭管理學, 東京; 有斐閣新書.
- 28) 宮寄禮子, 消費生活 社會化 家庭管理. 生活課題 教育と村田泰彦 編, (1984) 東京; 光生館.
- 29) 伊藤ヤツ 7人(1978). 家事勞動 現狀 動向 (第1報) 總論. 家政學雜誌, 29(8).
- 30) _____ (1979). 家事勞動の 現状と 動向 (第6報) 管理. その他の 家事勞動 主婦の 意識. 家政學雜誌 30(2).
- 31) 今井光映外 2人(1985). 現代家庭經營學. 東京; 勁草書房.
- 32) 奥村美大子(1983). 高齢者における 家事勞動. 家政學雜誌, 34(9). 33-38.
- 33) Deacon, R. E. & Firebaugh, F. M. Firebaugh (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34) Goebel, K. P. and Hennon, C. B. (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35)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7.
- 36) Robinson, J. P. (1980). Housework technology and household work in sarah F. Berk ed, women and Household Labor, sage yearbooks in women's policy studies 5, 53-58.
- 37) Strober, M. H. & Weinberg, C. B. Weinberg (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